

조선시대 불 바꾸기 의례



권용란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

‘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다. 지금처럼 전기와 가스가 없던 시절에는 불이 없으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필수적인 도구였다. 불을 직접 피울 일이 거의 없어진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 음식을 익히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불을 직접 피워야 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불과 더욱 친숙하게 지냈다. 이러한 이유로 불은 그저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불은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와 의례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무엇이든 태워버리는 불의 성질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시켜버리는 정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열기를 내뿜으면서 활발하게 요동치는 불의 모습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불의 상징이 정화와 생명력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만 지닌 것은 아니다. 순식간에 견잡을 수 없이 번져서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는 불의 성질은 파괴를 상징한다. 또한 불의 뜨거운 성질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견뎌내야 하는 시련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불의 성질에서 기인한 상징들이 만들어진 것은 불이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 이상의 것, 즉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존재이자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불이 지금보다 귀했던 예전에는 불의 상징이 의례에서 자주 이용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개화(改火)라는 독특한 의례였다. ‘개화’란 불을 다시 피운다는 의미로, 구체적으로는 불을 다시 피워서 예전에 피워두었던 오래된

불씨와 바꾸었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래된 불씨를 새로운 불씨로 갈아주었던 일은 조선시대에 궁중에서부터 각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행해진 국가의례였다. 그러면 불씨를 갈아주는 개화의례가 언제부터, 왜, 어떻게 행해졌을까?

불 바꾸기 의례가 처음 시작된 때는 조선왕조 두 번째 왕이었던 태종대부터였다. 이 의례가 시작된 경위는 태종실록 1406년 3월 24일의 기록에 잘 나타나있다. 실록에 의하면, 태종은 불 바꾸기 의례를 실시하라는 개화령(改火令)을 반포하고 있다. 당시 반포된 개화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 신하가 왕에게 아뢴다. “옛 선비가 말하기를, 불씨를 오래 두고 바꾸어주지 않으면 불꽃이 빛나고 거세게 이글거려 양기(陽氣)가 정도에 지나쳐서 병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럴기 때문에 매 절기마다 불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불이라고 하는 물건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늘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잘 파악해서 따라야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법이 폐지되어 불을 바꾸어주는 법령이 오랫동안 행해지지 아니하여, 불을 다스리는 도리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사철마다 불씨를 바꾸어주라는 영을 내려 한양에서는 병조에서, 지방에서는 수령들이 매년 사철의 입절하는 날과 계하 토왕일에 나무들을 문질러서 그 절기의 불씨로 바꾸게 하옵소서. 새로 갈아준 불로 음식을 삶고 익히는데도 사용하게 하옵소서.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불을 바꾸어주면 각 절기마다 걸리기 쉬운 역질(疫疾)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을 잘 조절한다면 역질의 재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말하기를, “권중화가 내게 이르기를, 사철에 불씨를 바꾸어주는 일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옛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왕은 의정부에 명을 내려 대신들이 의논하여 불을 바꾸어주는 일을 시행하게 하였다.

당시에 불 바꾸기 의례를 실시하였던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질병을 예방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양의 성질을 지닌 불이 오래되고 불꽃이 지나치게 강하면 양기가 너무 과해져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음양의 조화와 함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을 갈아주었던 것은, 불이 가지는 정화의 상징 때문이었다. 즉 불의 정화의 성질이 사악한 기운을 파괴시켜서 깨끗하게 제거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로 이어졌던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불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뜨거운 성질은 사악한 기운을 없애 버리거나 내쫓을 때에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사악한 기운을 가진 귀신에게 불을 들이 대면 뜨거운 열기와 빛에 순간 압도당하고 놀라서 도망갈 것이라는 불의 원초적인 상징을 이용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불에서 나오는 빛과 연기도 불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기운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벽사(辟邪)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불은 태우고, 굽고, 삶는데 사용됨과 동시에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기운들을 없애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의 기운이 지나친 불씨는 음양의 조화에 어긋난 상태이므로 질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여겨졌다. 당시에는 궁중의 건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집들이 나무나 짚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번 불이 나면 건잡을 수 없었다. 게다가 현대와 같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불이 나면 오로지 물을 뿌리는 일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재는 곧 자연 재해와 맞먹을 만큼의 커다란 재앙이었다. 새롭게 갈아진 불씨는 음식을 삶고 익힐 때 사용되는 아궁이 불로도 쓰여 저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오래된 옛 불을 새로운 불로 바꾸어주지 않으면 음양의 조화가 어그러지면서 무질서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씨를 바꾸어주는 것 즉, '개화'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불 바꾸기 의례는 불의 힘을 통제하고 잘 조절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인위적인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불 바꾸기 의례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몇 가지 규칙이 있었다. 우선, 불을 바꾸어주는 일은 일년에 다섯 차례만 실시되어야 했다. 다섯 차례는 각 계절이 시작되는 입춘일, 입하일, 입추일, 입동일 그리고 입하일과 입추일의 중간지점인 토왕일이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규칙은 불을 내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입춘일에는 버드나무 널빤지

에 느릅나무 기둥을 비벼서 불을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입하일에는 살구나무 널빤지에 대추나무 기둥을 비비고, 토왕일에는 산뽕나무 널빤지에 뽕나무 기둥을 비비고, 입추일에는 졸참나무 널빤지에 떡갈나무 기둥을 비비고, 입동일에는 박달나무 널빤지에 회나무 기둥을 비벼서 불을 만들었다.

불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같았지만, 각 절기마다 사용되었던 나무가 달랐다. 이것은 오행의 법칙에 의거하여 각 계절에 해당되는 색깔을 띠는 나무를 이용해서 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오행의 법칙에 따르면, 봄은 푸른색을, 여름은 붉은 색을, 가을은 흰색을, 토왕일은 황색을, 겨울은 검은 색을 상징한다. 이렇게 각 절기의 방위 색에 맞추어 나무를 선택한 것은, 각 절기에 맞는 상징체계로 불을 만들어야 음양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 절기마다 오행의 법칙을 준수하여 만들어진 불이야말로 각 절기에 유행하는 질병을 방어할 수 있는 주술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고 믿어졌다. 불의 주술력이 일년에 다섯 번씩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다소 복잡한 불 바꾸기 의례는 병조에서 주관하였다. 병조는 지금의 국방부와 재해대책본부의 역할을 담당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국방과 관련된 병조의 대표적인 임무는 당시의 적군의 침입을 알리는 통신수단 중의 하나였던 봉화와 궁중의 화재 예방이었다. 불 바꾸기 의례는 국방과 재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불과 관련된

모든 일을 병조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불 바꾸기 의례도 이곳에서 담당하였다.

불 바꾸기 의례는 병조의 주관아래 먼저, 종묘서·사직서·영희전·영녕전·경모궁·육상궁·선희궁에서 각각 행해졌다. 새로운 불씨를 만들었던 이 공간들은 국가의 제사를 드리던 제장이었다. 그만큼 불 바꾸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중 있는 의례였다. 그리고나서 이 새로운 불씨는 당시 행정조직기관이었던 규장각, 의정부, 승정원, 한성부에 각각 나누어졌다. 이렇게 불을 바꾸어주는 일은 궁중에서만 실천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각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대표였던 수령들이 불을 만들었다. 수령들은 민가에 새로 만든 불씨를 나누어주었다.

각 고을의 수령들은 병조의 역할을 대신했던 셈이고, 새로운 불씨는 왕이 직접 하사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대동야승이라는 책에 의하면, 조선초기의 학자였던 김숙자는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던 불 바꾸기 의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가 현감으로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매 절기마다 개화하는 일을 수령들은 거죽만 꾸미는 일처럼 보지만, 이것은 선왕이 만들어놓고 신하들에게 맡기신 일이다. 오래된 불의 기운이 질병이 되는 것이니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을 갈아주는 일을 급선무로 여겨야 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관청 앞에서 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으켜서 이것을 백성들의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같은 날에 행해진 불 바꾸기 의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발화된 불씨를 쓰게 함으로써 국가적 일원화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개화의례가 거국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은 질병예방과 화재예방을 통한 사회전반의 질서의 조화와 함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함이었다.

불 바꾸기 의례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이것을 통해서 불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았던 당시의 사고관념을 잘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불이 가지는 정화와 벽사의 상징이 국가의 제도 속에서 잘 활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불의 주술력은 각 절기마다 불씨를 바꾸는 그대에 새롭게 충만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불 바꾸기 의례를 반복적으로 행했던 것이다.

이것은 주술력을 가진 불이어야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고 화재도 예방해 준다고 믿었던 당시의 사고관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항상 피우고 꺼지기를 반복하는 불이고 얼마든지 언제든 피울 수 있는 불이지만, 다섯 절기마다 새로 만들어진 불은 일상적인 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불은 친숙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불씨를 바꾸어주었던 의례는 불을 좋은 방향으로 통제하고 잘 조절해서 다섯 절기마다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선시대의 중요한 안전장치였던 것이다. ☯